



유럽 중앙은행의 자산부채규모 급증에 대한 우려

오병국 연구원

■ 유럽중앙은행의 자산부채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유로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, 지급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.

- 2011년 12월 기준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자산부채규모는 약 2.73조 유로이며,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임.
 -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유로존 은행에 꾸준히 자금을 공급한 결과이며, 총 대출 규모도 8,790억 유로로 확대됨.
- 이 같은 유동성이 낮은 금리와 결합되어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될 경우 유로화 표시 채권과 기타유가증권 등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남.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제로금리수준 유지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한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 결과 성장세는 다소 회복되었으나, 달러 가치가 하락함.
 - 유럽 중앙은행의 저금리 유지와 과도한 시장유동성 공급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며, 결과적으로 유로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여 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질(quality)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.
- 게다가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리스를 포함한 재정위기국이 채무불이행(default)을 선언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의 지급여력(solvency)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.
 -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 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민간은행의 발행증권에 대한 시장평가가 더욱 나빠질 것임.

■ 이에 대해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미국 양적완화정책과 동일한 양식이 아니며, 기관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함.

-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유럽 중앙은행이 영구적으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큰 규모의 국채매입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, 통화확장정책의 기본양식이 미국의 양적완화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밝힘.

- 유럽 중앙은행이 실시한 3년 만기 장기대출(three-year refinancing operation)은 일시적인 정책이므로 금융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.
- 또한,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입안자는 자산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점차 논란이 되더라도 기관운영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.

(Wall Street Journal, 1/16)